

# 새해 첫 일출 무등산·향일암 07:33

신안 가거도에서 을미(乙未)년 마지막 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고, 여수 향일암에서 2016년 병신(丙申)년 새해 첫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천문연구원은 25일 “내년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26분18초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뜨고, 올해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39분53초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해돋이 명소인 여수 향일암에서는 오전 7시33분~7시34분께, 광주

무등산(장봉재)에서는 오전 7시33분께 새해 첫날 일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주요 지점별 새해 해돋이 시각은 고흥 외나로도 오전 7시36분19초, 순천 7시37분47초, 완도 7시39분, 장흥 7시39분22초, 해남 7시40분22초, 광주 7시40분37초, 목포 7시41분51초, 흑산도 7시45분14초 등이다.

일출 시각은 해발고도 0m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 시각이 당겨진다. 가령 해발 100m에서의 실

제 일출시각은 발표시간에 비해 2분가량 이르고, 해발 900m에서는 6분가량 빨라진다.

올해 마지막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은 신안 가거도이며, 육지에서는 진도 세방낙조에서 오후 5시34분52초까지 해를 볼 수 있다.

전남 지역의 해돋이 명소별 일출 시각은 영광 가마미 오후 5시31분10초, 완도 보길도 5시34분02초, 해남 땅끝마을 5시33분34초, 무안 도리포 5시32분03초다.

광주는 오후 5시30분1초에 을미년 마지막 해가 진다.

기타 지역의 일출·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 생활천문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고, 내년 1월1일에는 구름이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 삶는 아낙들 22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 부녀회원들이 메주를 만들기 위해 공을 삶고 있다. 만들어진 메주는 숙성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께 출하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한의사 등 20명 보험사기 가담 의혹

보험사, 양·한방 병원 20곳 사기방조혐의 고발키로

보험사기 극성...경찰, 1억4천만원 부당수령 부자 입건

광주지역 양·한방 병원 의사 수십 명이 보험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아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4년에 걸쳐 병원 40여 곳을 돌며 허위 입원 또는 입원 없이 서류상으로만 환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타낸 50대 보험사기범 부자(父子)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사기 행각을 도왔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순해보험사 A사는 조만간 광주지역 양·한방 병원 의사 20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키로 했다. 고발 대상으로 거론되는 병원은 북구 동림동 J한방병원, 운암동 I·D한방병원, 용봉동 J한방병

원, 서구 화정동 G한방병원 등 병원 20곳 소속 의사 20명으로 이들 의사는 환자를 입원시키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원 수속을 밟고 진료기록지를 작성해 보험사기 행각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A사 측이 양·한방 병원 의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수사 의뢰 방침을 세운 것은 한 의원, 한방병원이 70여 개소에 이르는 광주지역에서 병원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과 보험사기범들의 결탁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순해보험협회와 민간 보험사들도 지역에서 매년 수백~수천명의 보험사기범들이 양성되고 있는 현상의 근원에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방

조한 탓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서부경찰이 최근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김모(57)씨 부자의 사례를 보면 병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보험금 부정 수령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에 사는 김씨 부자는 특별한 재산도, 이렇다할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지난 4년간 부족한 생활을 누렸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부자의 집엔 고가의 분체가 널려 있었고 명품 의류를 비롯한 값비싼 물건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병원 입원시 민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때문이었다.

김씨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이달 초까지 광주지역 한·양방 병원 등 43군데의 병원을 돌며 74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허위로 타낸 보험금만 무려 1억4000만원, 교

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입원 수속을 밟았지만 실제 사고는 없었고, 눈곱에서 빠져져 다리를 빼었다고 진료기록부에 나왔지만 모두 허위였다. 사고는 물론 입원 사실도 가짜, 즉 '서류상 환자'였던 것이다. A사 측은 김씨 부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병원 측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조만간 광주지역 의사 20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9월 주부, 대학생 등 139명이 성형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받고서 병원 운영자와 짜고 등산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됐고 광양시 경우 한 마을 주민 20명이 무려 8년에 걸쳐 허위 입·퇴원을 반복, 4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지난해 초 검거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8, 해질 17:25, 일출 15:46, 일몰 04:50

**아침 안개 주의**  
흐리고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C)**

|    |      |     |      |
|----|------|-----|------|
| 광주 | 7/10 | 보성  | 6/10 |
| 목포 | 7/11 | 순천  | 8/12 |
| 여수 | 9/11 | 영광  | 6/10 |
| 나주 | 6/10 | 진도  | 7/12 |
| 완도 | 7/12 | 전주  | 5/10 |
| 구례 | 6/10 | 군산  | 5/9  |
| 강진 | 7/12 | 남원  | 5/10 |
| 해남 | 7/12 | 흑산도 | 8/10 |
| 장성 | 6/10 |     |      |

**바다 날씨**

| 방향           | 파고(m)        | 방향   | 파고(m)   |
|--------------|--------------|------|---------|
| 서해 앞바다       | 북동~동 0.5~1.0 | 북~북동 | 0.5~1.5 |
| 남부 앞바다       | 북동~동 0.5~1.5 | 북~북동 | 1.0~2.0 |
| 남해 서부 앞바다(동) | 북동~동 1.0~2.0 | 북~북동 | 1.0~2.0 |
| 남해 동부 앞바다(서) | 북동~동 1.0~1.5 | 북~북동 | 1.0~2.0 |

**생활지수**

|    |      |
|----|------|
| 관심 | 체감온도 |
| 낮음 | 동파   |
| 보통 | 뇌졸중  |

**물때**

| 목포       | 여수       |
|----------|----------|
| 밀물 12:30 | 밀물 05:12 |
| 00:00    | 17:56    |
| 07:31    | 00:55    |
| 19:42    | 13:35    |

**주간 날씨**

| 24(목) | 25(금) | 26(토) | 27(일) | 28(월) | 29(화) | 30(수) |
|-------|-------|-------|-------|-------|-------|-------|
| ☀     | ☀     | ☀     | ☀     | ☀     | ☀     | ☀     |
| 4/10  | 2/7   | 0/8   | 0/4   | -3/3  | -1/6  | 1/7   |

##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나의 행복”

진제 조계종 종정 신년 범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22일 신년범어를 통해 “새해에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자”면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은 덜어주며,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에 나의 행복이 있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자신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배려난다는 것을 알아야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해에는 총칼을 녹여서 호미와 낫을 만들고 대립과 증오가 변화하

자와 화합이 되어 전쟁과 공포와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다 함께 축수(祝壽)하자”고 제안했다.

대한불교 진제종 종정인 도용 스님은 신년범어를 통해 “귀하게 만난 인간의 몸과 부처님 법에 감사하며 사바세계 율적에 모든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서원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늘 기억하라”고 말했다.

원불교의 최고지도자인 경산 종법사는 신년범어에서 “누구에게나 일을 시작할 때의 첫 마음이 있다”면서 “100주년을 기념해 나의 초심은 무엇이며, 우리 가정의 초심은 무엇이고, 교단이 사회에 한 약속은 무엇인가 다시 반조해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미안마 재정착 난민 22명 내일 국내 입국

난민법 시행 후 첫 수용

외국 난민캠프에 있던 난민들이 한국에서 재정착하기 위해 난민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국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매년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재정착 난민제도란 해외 난민캠프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난민을 유엔난민기구(UNHCR)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수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간 매년 30명 이내에서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